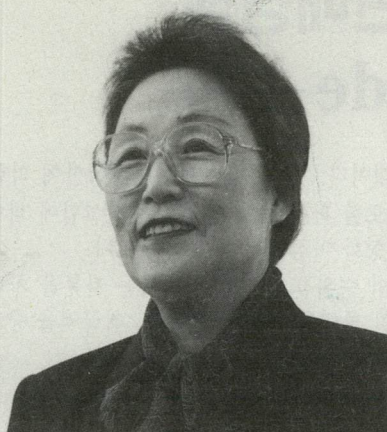


오늘을 생각하며



녹색의전화 대표/평민당 박영숙 부총재

환경생태학적인 기업경영

결국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품경쟁에
뒤질 것이다.

환경오염문제가 우리들을 걱정스럽게 만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요즘 부쩍 각종 매스컴에서 환경오염문제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게 된 것은 이제 환경오염문제가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올해에는 YMCA, YWCA 등 시민단체들이나 소비자단체에서도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회원활동을 계획하고 있고, 환경보전운동을 하고자 하는 크고 작은 단체들이 생길 전망이다.

하지만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전국민의 인식도나 해결을 위한 실천들은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유원지에 널린 쓰레기와 공장들이 몰래 버리는 산업폐수 등 도무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환경보전운동이 시작되어야 할지 아득할 때가 많다.

그래서 올해는 온국민 모두가 가까운 주변에서부터 환경보전을 위한 한가지 실천을 해야겠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환경윤리관은 어느 나라보다도 엄했다고 한다. 특히 '치산치수'는 나라의 최우선의 정책과제로서 산의 소나무 한 그루를 불법으로 벨 때 곤장 100대를 맞고, 두 그루를 불법으로 벨 때는 곤장 100대에 군복무를 하여야 했고, 10그루를 베었을 때는 곤장 100대 후에 국외추방을 하였다 한다.

또 선조들이 애용하던 참빗도 '되매기빗'이라 하여 쓰다가 이빠진 참빗을 다시 골라 맨 빗이 더 값이 비쌌다고 한다.

그러나 요즘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면 선조들과 비교할때 부끄러운 일이 너무도 많다. 무엇이든지 새 것이 좋고, 비싼 것, 편리한 것이 좋다는 사고방식이 알게 모르게 깊숙히 파고든 것이다. 대량생산·대량소비의 경제적 논리가 모든 부분에서 환경파괴를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논리보다 환경의 질이 중요하다는 가치 전환이 없이는 오늘날 우리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환경오염문제가 해결되리라는 전망을 가질 수 없다.

얼마전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한 세미나에 초청된 일본인 학자의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 우리나라 기업도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결코 세계시장에서 생존하기 어려울 시점이 오리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날 일본인 교수는 일본 자동차산업이 미국을 누르고 세계시장을 점유한 것도 국가정책이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자동차의 개발을 채택하였고, 기업도 국가의 권유를 따라 저공해배출 차량을 개발, 생산하여 활로를 찾을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미 이러한 현상이 벌써 우리나라에도 파급되고 있다. 냉장고에 쓰는 프레온가스가 오존층을 파괴한다고 그의 사용금지가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이미 선진 각국도 프레온가스를 쓰지 않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결국 앞으로는 우리 기업들도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시설투자와 기술개발을 더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품경쟁에서 뒤질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공해배출을 적게 하는 회사의 상품에는 ECO-MARK를 붙여준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정책적으로 이런 회사들은 지원해야 한다.

각 기업들이 이러한 기업운영방안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플라스틱용기에 담긴 달걀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재생종이로 만든 골판지에 담긴 달걀을 사고, 500년이상 썩지 않는 각종 일회용 상품들의 사용을 자제하고, 수질오염을 시키는 합성세제나 샴푸를 천연세제로 개발하도록 요구하고, 또 그러한 상품들만을 골라서 구매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환경오염방지대책은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대책에 치중하였다. 환경오염문제는 일단 발생하면 그 복원에 드는 비용이 예방에 드는 비용보다 훨씬 많이 든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 모두 소비생활에서 가능하면 쓰레기가 덜 나오도록 하는 생활양식으로 전환하고, 기업은 재활용산업이나 환경보전 기술투자로 전환될때 환경오염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찾고, 서로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보다 환경보전운동이 먼저 시작된 선진국의 환경단체에서는 일찍이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을 갖도록 국민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갖가지 과소비와 허례허식이 건전한 국민생활을 파괴하고 있다. 천만원을 훔가하는 밍크코트와 외제차, 외제가구, 값비싼 수입상품들과 기업접대비로 엄청난 유흥비가 소비되는 현상은 심히 우려가 된다. 이제 환경보전도 구호나 말만이 아니라 좀더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며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지구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결국 현재처럼 자꾸 에너지를 쓰고, 에너지의 재활용이 안되면 아마도 한 세대, 두 세대 내에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고 생태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아직까지 극대 이윤추구에만 몰두한 나머지 거시적인 사고를 못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또한 환경생태학적인 기업경영방식을 적극적으로 채택하여야 한다. 경제개발도 결국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잘 살 수 있기 위해서가 아닌가. 소비자, 기업, 정부가 삼위일체가 되어 그동안 무조건적인 경제개발위주의 경제정책과 소비패턴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우리의 환경오염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작년은 정부가 환경원년으로 정하고, 환경청이 환경처로 승격된 해이다. 그러나 얼마 전 한 환경단체에서 올해의 공해인으로 환경처를 뽑았다. 앞으로 소비자운동이나 환경운동이 성장하면 올해의 공해인으로 몇몇 회사들을 지목하여 불매운동을 벌일 시기도 곧 다가올 것이다. 그만큼 소비자들의 의식이 성장하고 있다. 환경인으로 뽑힐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환경오염예방에 앞장서는 기업이 더 번창할 수 있다는 신념이 건전한 기업인들에게 많이 자리잡혔으면 한다.